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요한복음 47 주차 (21:1~25)

(2015년 12월 13일 - 2015년 12월 19일)

(제3권 47호)



Missions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제 3 권-제 47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12 월 13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http://www.b2bm.org)

####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sup>th</sup>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http://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나는 물고기를 잡으로 가노라 (주일)

### 오늘의 본문 (요 21:1~14)

1.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2.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3.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4.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줄 알지 못하는지라
5.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 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7.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겹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 원문해석하기

- (1절) 그 후에(Μετὰ ταῦτα)  
예수님이 스스로를 제자들에게 다시 보이셨습니다 (ἐφανερώσεν ἑαυτὸν πάλιν ὁ Ἰησοῦς τοῖς μαθηταῖς)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ἐπὶ τῆς θαλάσσης τῆς Τιβεριάδος·)  
그는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ἐφανερώσεν δὲ οὕτως·)
- (2절) 거기에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부르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의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ἦσαν ὁμοῦ Σίμων Πέτρος καὶ Θωμᾶς ὁ λεγόμενος Δίδυμος καὶ Ναθαναὴλ ὁ ἀπὸ Κανὰ τῆς Γαλιλαίας καὶ οἱ τοῦ Ζεβεδαίου καὶ ἄλλοι ἐκ τῶν μαθητῶν αὐτοῦ δύο·)
- (3절)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οῖς Σίμων Πέτρος·)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 (ὑπάγω ἀλιεύειν·)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ουσιν αὐτῷ·)  
우리도 너와 함께 간다 (ἐρχόμεθα καὶ ἡμεῖς σὺν σοί·)  
그들이 나갔고 배에 올랐습니다 (ἐξῆλθον καὶ ἐνέβησαν εἰς τὸ πλοῖον·)  
그리고 그날 밤 아무 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καὶ ἐν ἐκείνῃ τῇ νυκτὶ ἐπίασαν οὐδέν·)
- (4절) 새벽이 이미 다 되었을 때 (πρωΐας δὲ ἤδη γενομένης)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습니다 (ἔστη Ἰησοῦς εἰς τὸν αἰγιαλόν·)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서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οὐ μέντοι ᾔδεισαν οἱ μαθηταὶ ὅτι Ἰησοῦς ἐστίν·)
- (5절)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οὖν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아이들아 너희들에게 물고기가 없지 않느냐? (παιδιά, μὴ τι προσφάγιον ἔχετε·)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ἀπεκρίθησαν αὐτῷ· οὐ·)
- (6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ὁ δὲ εἶπεν αὐτοῖς·)  
그물을 배의 오른편으로 던지라 (βάλετε εἰς τὰ δεξιὰ μέρη τοῦ πλοίου τὸ δίκτυον·)

- 그리고 너희들이 발견할 것이다 (καὶ εὕρησθε.)  
 그러자 그들이 [그물을] 던졌습니다 (ἔβαλον οὖν.)  
 그리고 그것을 더이상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καὶ οὐκέτι αὐτὸ ἐλκύσαι ἴσχυον)  
 물고기들이 넘쳤기 때문에 (ὅπρὸ τοῦ πλήθους τῶν ἰχθύων.)  
 (7절)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한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οὖν ὁ μαθητὴς ἐκεῖνος ὃν ἠγάπα ὁ Ἰησοῦς τῷ Πέτρῳ·)  
 그가 주님이시다 (ὁ κύριός ἐστιν.)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그가 주님이시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Σίμων οὖν Πέτρος ἀκούσας ὅτι ὁ κύριός ἐστιν)  
 그가 걸옷을 입었습니다 (τὸν ἐπενδύτην διεξώσαστο.)  
 왜냐하면 그가 벗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ἦν γὰρ γυμνός)  
 그리고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καὶ ἔβαλεν ἑαυτὸν εἰς τὴν θάλασσαν.)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참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한복음 21 장이 앞의 20 장과는 별도로 그보다 후대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요한이 20 장까지 기록하고 나중에 누군가가 이를 추가했는데, 필체나 쓰인 단어로 판단할 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 누가 21 장을 추가했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학자들의 몫입니다. 중요한 것은 21 장이 요한복음에 포함되었고, 그것이 정경으로 인정되어 오늘날까지 읽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이 또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고 후에 요한복음에 덧붙여져서 지금까지 읽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 장을 읽을 때는 그 내용을 지나치게 바로 앞부분(1-20 장)에 이어서 해석하기보다는 사복음서 내용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겁니다(21:14 참조).

예수님은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다,’ ‘드러내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 ‘파네로오’ (φανερῶ) 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본래의 정체를 드러내거나 감추어진 비밀을 계시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그곳에 오셔서 단순히 자신의 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무언가 진리의 메시지를 통해 감추어진 비밀을 계시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다는 것 자체에만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굳이 그 새벽에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 그곳에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이 제자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주었을까요?

2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그곳에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부르는 도마와 갈릴리가나의 나dana엘과 세베데의 아들들과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 글의 저자는 그곳에 일곱 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 도마, 나dana엘, 세베데의 아들들(요한, 야고보)은 정체를 알 수 있으나 나머지

지 둘은 누구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나다나엘은 열두 사도에 포함된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친구 빌립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요 1:45)라고 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 예수님을 만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요 1:49)라고 고백한 인물입니다. 그 이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그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 장에서는 그가 어디 출신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가 21 장에서는 갈릴리 가나 출신임을 밝히고 있는 점도 특이하다 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보이신 곳이고 (2:1-12), 왕의 신하를 만나 그의 병든 아들을 말씀 한 마디로 고치신 곳이기도 합니다 (4:46-54).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 다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요한복음 21 장에 다시 등장한 것, 그리고 그가 어디 출신인 것만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저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듯 보입니다. 나다나엘의 고백과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기적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니까요.

3절을 읽으십시오. 일곱 명이 모인 자리에서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떠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너와 함께 간다”라고 말하고는 함께 나가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무 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3여년 전 떠났던 그 바다로 다시 물고기를 잡기 위해 돌아옵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결국에는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가 ‘랍비’요 ‘주’라 따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그분이 더 이상 그들 곁에 없자 그는 이내 과거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아마도 이때가 유월절 명절을 보내고 갈릴리로 돌아온 직후로 추정됩니다. 예수님이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 두 번씩이나 부활하신 몸으로 그 앞에 나타나셨지만 아직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그는 3년간의 꿈같은 시간들을 뒤로 한채 다시 노를 저어 바다로 나간 겁니다.

시몬 베드로와 친구들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고기잡이는 주로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밤이 물고기를 잡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었기 때문이지요. 어부들은 밤새 잡은 물고기를 아침 새벽 어시장에 내다 팔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들에게 ‘빈 배’는 참으로 절망을 안겨다 주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경험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 장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 장 1 절~2 절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눅 5:1-2).

그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허탕을 쳐서 지치고 풀이 죽은 상태였지요. 그렇게 허탕을 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물론 그들에게 수많은 물고기를 선물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불러 제자로 삼기 위해서였지요. 이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기적처럼 잡은 물고기는 물론이고 배마저 버리고 말이지요. 그의 사명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낚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전환기를 맞았던 베드로는 3년의 인생 여정 끝에 제자리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그날처럼 이날도 똑같이 밤새도록 헛고생만 하고 빈배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날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에서 무엇이 연상되나요? 베드로는 지난 3년간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을 쫓았길래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을까요? 분명 자신이 원했던 그것,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심지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면서도 늘 그가 원하고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가 3년 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은 그 자신이 마음 속으로 품었던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고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각자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십자가의 죄 용서 때문이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내면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인간적인 기대감, 간절한 소원이 있지는 않나요?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지요? 베드로처럼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갈 건가요? 아니면 나의 욕망을 내려 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건가요?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너희들에게 물고기가 없지 않느냐? (월요일)

### 오늘의 본문 (요 21:1~14)

1.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2.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3.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4.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줄 알지 못하는지라
5.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 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7.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걸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 원문해석하기

- (1절) 그 후에(Μετὰ ταῦτα)  
예수님이 스스로를 제자들에게 다시 보이셨습니다(ἔφρανέρωσεν ἑαυτὸν πάλιν ὁ Ἰησοῦς τοῖς μαθηταῖς)  
티베리아 바닷가에서(ἐπὶ τῆς θαλάσσης τῆς Τιβεριάδος)  
그는 이렇게 보이셨습니다(ἔφρανέρωσεν δὲ οὕτως)
- (2절) 거기에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부르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의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ἦσαν ὁμοῦ Σίμων Πέτρος καὶ Θωμᾶς ὁ λεγόμενος Δίδυμος καὶ Ναθαναὴλ ὁ ἀπὸ Κανὰ τῆς Γαλιλαίας καὶ οἱ τοῦ Ζεβεδαίου καὶ ἄλλοι ἐκ τῶν μαθητῶν αὐτοῦ δύο.)
- (3절)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λέγει αὐτοῖς Σίμων Πέτρος·)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ὑπάγω ἀλιεύειν.)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λέγουσιν αὐτῷ·)  
우리도 너와 함께 간다(ἐρχόμεθα καὶ ἡμεῖς σὺν σοί.)  
그들이 나갔고 배에 올랐습니다(ἐξῆλθον καὶ ἐνέβησαν εἰς τὸ πλοῖον.)  
그리고 그날 밤 아무 것도 잡지 못했습니다(καὶ ἐν ἐκείνῃ τῇ νυκτὶ ἐπίασαν οὐδέν.)
- (4절) 새벽이 이미 다 되었을 때(πρωΐας δὲ ἤδη γενομένης)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습니다(ἔστη Ἰησοῦς εἰς τὸν αἰγιαλόν.)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서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οὐ μέντοι ᾔδεισαν οἱ μαθηταὶ ὅτι Ἰησοῦς ἐστίν.)
- (5절)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λέγει οὖν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아이들아 너희들에게 물고기가 없지 않느냐?(παιδιά, μή τι προσφάγιον ἔχετε;)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ἀπεκρίθησαν αὐτῷ· οὐ·)
- (6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ὁ δὲ εἶπεν αὐτοῖς·)  
그물을 배의 오른편으로 던지라(βάλετε εἰς τὰ δεξιὰ μέρη τοῦ πλοίου τὸ δίκτυον.)

- 그리고 너희들이 발견할 것이다 (καὶ εὕρησθε.)  
 그러자 그들이 [그물을] 던졌습니다 (ἔβαλον οὖν.)  
 그리고 그것을 더이상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καὶ οὐκέτι αὐτὸ ἐλκύσαι ἴσχυον)  
 물고기들이 넘쳤기 때문에 (ἀπὸ τοῦ πλήθους τῶν ἰχθύων.)  
 (7절)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한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οὖν ὁ μαθητὴς ἐκεῖνος ὃν ἠγάπα ὁ Ἰησοῦς τῷ Πέτρῳ·)  
 그가 주님이시다 (ὁ κύριός ἐστιν.)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그가 주님이시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Σίμων οὖν Πέτρος ἀκούσας ὅτι ὁ κύριός ἐστιν)  
 그가 걸옷을 입었습니다 (τὸν ἐπενδύτην διεζύωσε.)  
 왜냐하면 그가 벗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ἦν γὰρ γυμνός)  
 그리고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καὶ ἔβαλεν ἑαυτὸν εἰς τὴν θάλασσαν.)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4 절을 읽으십시오. 새벽녘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랬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그분이 자신들 바로 곁에 함께 계셔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지금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씩이나 만난 경험이 있으므로 그사이에 영적인 눈이 다시 어두워졌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정을 하게 됩니다. 너무 이른 아침이라 멀리 떨어져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 볼 수 없었을 거라고 말이지요. 많은 학자들도 이 견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가정이 맞다면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제자들이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보다는 ‘이른 새벽’이라는 시간일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한 가지 가정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데만 열중하여 그물 던지는데 집중하느라 미처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가정입니다. 열매없는 세상 일에 몰두해서 정작 예수님이 그들 곁에 몸소 찾아 오신 것을 깨닫지 못한 거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각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5-6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물고기가 없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지시하셨고 제자들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자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밤새도록 헛고생을 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아 너희들에게 물고기가 없지 않느냐? (παιδιά, μή τι προσφάγιον ἔχετε; 파이디아, 메 티 프로스파기온 에케테?)”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이들아” (παιδιά, 파이디아)라고 부릅니다. 파이디아라는 말은 아직 후견인이 필요한 어린 아이, 법적으로는 행위 무능력자인 성인이 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요즈음은 그냥 ‘애들아’라고 애칭으로 부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애칭으로 이해한다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친근한 관계로 부르시고 있는 것이고,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어린 아이들아’라고 본다면 아직 무언가 부족해서 인도를 받아야 할 존재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견해를 지지하나요?



예수님은 “너희에게 물고기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아주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바로 ‘프로스파기온’ (προσπαγιο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이곳에서 단 한 번만 사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헬라어로 ‘물고기’는 ‘이크투스’(ἰχθύς)로 표기합니다. 게다가 21 장 6 절에서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5 절의 ‘프로스파기온’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단어는 물고기 한 마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선 한 토막 또는 한 조각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한 마리는 커녕 한 토막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지 않았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헛수고를 했고 그 결과 그들의 배가 텅 비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인간들의 노력의 결과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뤄낸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 것도 가지지 못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허망하고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순간인 것이지요.

6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순순히 따랐습니다. 결과는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그 오른편은 늘 ‘행운’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은 그런 차원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6 절에서 주목해서 읽어야 할 대목은 그들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아무도 예수님이신 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런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개념치 않았습다. 오로지 눈 앞에 당면한 자신들의 목적에만 충실할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지 아닌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잡는데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돼 있었기에, 누군가가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하자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이 장면은 누가복음 5 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누가복음 5 장 3~6 절을 보겠습니다.

“3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띄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sup>4</sup> 말씀은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sup>5</sup>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sup>6</sup> 그리한즉 고기를 에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눅 5:3-6).

밤새 허탕을 치고 말없이 그물을 씻는 베드로와 그 일행에게로 예수님이 찾아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아무 생각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몰려온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의 배가 일종의 강대상이 된 셈이죠.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르침이 끝나고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하며 그대로 실행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지요.

이처럼 요한복음 21 장 7 절에서도 모든 상황이 반전됩니다. 밤새 고생고생하며 한 토막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쳤던 그들에게 들지도 못할 정도로 그물 가득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긴 밤을 헛되게 보낸 이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그 제자가 그분이 예수님인지 확인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3년전 그날 일이 떠올랐을 지도 모릅니다. 분명 자신들에게 이런 일을 보여 주실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주님이시다!”라는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허둥지둥 겹옷을 입었습니다. 아마도 옷을 벗어젖히고 그 물질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다 속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은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예수님과 배 사이의 거리는 그다지 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8 절참조). 베드로가 왜 다급하게 물로 뛰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가 너무 기뻐서 그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미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3년간 가르쳤던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 봐도 단지 예수님과의 만남이 너무 기뻐서 그랬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부끄러운 일을 하다 들킨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것이 그 동안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 앞에서는 용기 있게 나서지만, 예수님 없이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는 자신의 몸하나 보신하기에 급급한 베드로였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 속에서 오늘날 비겁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버랩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티베리아 바닷가에서의 아침 식사 (화요일)

### 오늘의 본문 (요 21:8~14)

8.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오십 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와서
9.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0.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11.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일백 쉰 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2.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4.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 원문해석하기

- (8절) 다른 제자들이 배로 왔습니다 (οἱ δὲ ἄλλοι μαθηταὶ τῷ πλοιαρίῳ ἦλθον,  
그들이 육지로부터 불과 이백규빗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οὐ γὰρ ἦσαν μακρὰν ἀπὸ τῆς γῆς ἀλλὰ ὡς ἀπὸ πηχῶν διακοσίων),  
물로기로 가득한 그물을 끌면서 (σύροντες τὸ δίκτυον τῶν ἰχθύων).)
- (9절) 그들이 땅위로 나왔을 때 (ὡς οὖν ἀπέβησαν εἰς τὴν γῆν)  
숯불이 놓여 있고 그 위에 얹혀있는 물고기와 빵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βλέπουσιν ἀνθρακίαν κειμένην καὶ ὀψάριον ἐπικειμένον καὶ ἄρτον).)
- (10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방금 잡은 생선 중 얼마를 좀 가져 오너라 (ἐνέγκατε ἀπὸ τῶν ὀψαρίων ὧν ἐπάσσατε νῦν.)
- (11절)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올라왔습니다 (ἀνέβη οὖν Σίμων Πέτρος)  
그리고 그물을 땅 위로 끌어 왔습니다 (καὶ εἴλκυσε τὸ δίκτυον εἰς τὴν γῆν)  
백오십세마리의 큰 물고기로 가득한 [그물] (μυστὸν ἰχθύων μεγάλων ἑκατὸν πενήκοντα τριῶν)  
비록 수가 많았지만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καὶ τοσοῦτων ὄντων οὐκ ἐσχίσθη τὸ δίκτυον).)
- (1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어서 와서 아침을 먹어라 (δεῦτε ἀριστήσατε.)  
제자들 중 어떤 사람도 그가 누구인지 알아 보고자 묻지 않았습니다  
(οὐδεὶς δὲ ἐτόλμα τῶν μαθητῶν ἐξετάσαι αὐτόν)  
당신이 누구입니까? (σὺ τίς εἶ;  
그가 주님이신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εἰδότες ὅτι ὁ κύριός ἐστιν).)
- (13절) 예수님이 가셔서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ἔρχεται Ἰησοῦς καὶ λαμβάνει τὸν ἄρτον καὶ δίδωσιν αὐτοῖς)  
그리고 물고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καὶ τὸ ὀψάριον ὁμοίως)
- (14절) 이제 이번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세 번째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τοῦτο ἤδη τρίτον ἐφανερῶθη Ἰησοῦς τοῖς μαθηταῖς)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후 (ἐγερθεὶς ἐκ νεκρῶν.)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8 절을 읽으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물고기로 가득한 그물을 끌면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육지로부터 불과 이백 규빗(약 90 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행동이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요한)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발견했으나 그가 예수님 앞으로 달려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벗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이내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잡은 고기를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고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물고기는 물론 배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도록 그토록 잡고자 했던 고기가 한꺼번에 잡혔는데도 그는 그것에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아 있던 여섯 명의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육지로 옮겼습니다.

9 절을 읽으십시오. 그들이 물으로 올라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피워 놓은 숯불과 숯불 위에 있는 물고기 그리고 빵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숯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때 추위를 피해 몸을 녹이려고 쪼이던 그 숯불을 연상케 합니다 (18:18). 아마도 밤새 추위에 떨며 일한 제자들을 위해 피워 놓은 것일 테지만 베드로에게는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에게 숯불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상징물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세팅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한편, 물고기라는 의미로 쓰인 단어 ‘옵사리온’ (ὀψάριον) 은 단수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큰 물고기 한 마리가 숯불 위에 놓여져 있었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10-11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방금 잡은 생선 중 얼마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여러 명이 식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생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배로 올라가 그물을 땅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물은 큰 물고기들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모두 153 마리였습니다. 비록 수는 많았지만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11 절에는 해석이 어려운 내용이 하나 들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잡힌 물고기 숫자가 153 마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숫자는 의미없이 마구 적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물고기가 153 마리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 숫자를 기록하였을까요? 그냥 엄청 많이 잡혔다고 하면 될 것을 굳이 구체적인 숫자를 기록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해 왔으나 아직까지 확실하게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적어도 다수가 동의하는) 해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학자들은 이 숫자가 단순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의도로 물고기의 숫자를 기록했는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의 의미가 우리 신앙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으므로 억지로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12 절을 읽으십시오. 아침이 준비되자 예수님이 어서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에게 아침을 먹으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구

인지 묻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 절에서 자자가 강조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아침을 먹으라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제자들을 부르고 있는 분이 그 누구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물론 나머지 다섯 제자들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순순히 예수님이 지시하는대로 따랐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은 이제 매우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 등장하는 부분에서 제자들이 보여준 반응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못 자국난 손과 창 자국난 옆구리를 보여 주어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주셨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나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열 명의 제자들이 그랬고, 두 번째 만남에서는 첫 번째 만남의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그랬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곳에서는 열한 제자 외에 나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마 못지 않는 실증적 경험주의자였습니다. 증거가 없는 것은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에게 메시아를 보았다고 전했을 때 매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나다니엘 또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더 이상 시비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sup>4</sup>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sup>5</sup>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 두 제자에게와<sup>6</sup>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 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sup>7</sup>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sup>8</sup>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전 15:3-8).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더 이상 증거가 필요없는 기정 사실이며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 중 어떤 사람도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고자 ‘당신이 누구입니까?’라고 묻지 않았습다.”라고 굳이 기록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일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사신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단순한 죄사함은 복음의 반쪽에 불과합니다. 부활을 통해 영생의 소망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부활이 있기에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당신은 어떠한가요? 진정으로 부활을 믿고 있고 있나요? 각각 자신들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3-14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빵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먹고 힘내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라고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먹고사는 문제는 자기에게 맡기고 이 제부턴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sup>22</sup>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sup>23</sup>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sup>24</sup>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어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sup>25</sup>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sup>26</sup>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sup>27</sup>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sup>28</sup>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판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sup>29</sup>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눅 12:22-29).

제자들은 당장 먹고 사는 삶에만 급급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이나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그물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들은 소위 사도라 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20:21). 그러나 그들은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밥 한 그릇을 위해서지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먹을 것을 만들어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밥은 너희들이 애쓴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복음을 받았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나요? 그런데도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요? 각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네가 날 사랑하느냐? (수요일)

### 오늘의 본문 (요 21:15~19)

15.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 또 두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18.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 원문해석하기

- (15절) 그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난 후 ('Οτε οὖν ἤρισθησαν)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τῷ Σίμωνι Πέτρῳ ὁ Ἰησοῦς;)  
요한의 [아들] 시몬아 (Σίμων Ἰωάννου,)  
네가 이들 보다 더 나를 아가페하느냐? (ἀγαπᾷς με πλέον τούτων;)  
그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필레오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ναὶ κύριε, σὺ οἶδας ὅτι φιλῶ σε. λέγει αὐτῷ·)  
나의 양들을 먹이라 (βόσκει τὰ ἄρνια μου.)
- (16절) 그가 두 번째로 다시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πάλιν δεύτερον·)  
요한의 [아들] 시몬아 (Σίμων Ἰωάννου,)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ἀγαπᾷς με;)  
그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필레오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ναὶ κύριε, σὺ οἶδας ὅτι φιλῶ σε. λέγει αὐτῷ·)  
나의 양들을 인도하라 (ποιμαίνε τὰ πρόβατά μου.)
- (17절) 그가 세 번째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τὸ τρίτον·)  
요한의 [아들] 시몬아 (Σίμων Ἰωάννου,)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φιλεῖς με;)  
시몬 베드로가 슬퍼했습니다 (ἐλυπήθη ὁ Πέτρος)  
그가 그에게 세 번째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 (ὅτι εἶπεν αὐτῷ τὸ τρίτον· φιλεῖς με·)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καὶ λέγει αὐτῷ·)  
 주여 당신이 모두를 아십니다 (κύριε, πάντα σὺ οἶδας·)  
 내가 당신을 필레오한다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σὺ γινώσκεις ὅτι φιλῶ σε·)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나의 양들을 먹이라 (βόσκει τὰ πρόβατά μου.)
-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σοι·)  
 네가 젊었을 때에는 (ὅτε ἦς νεώτερος·)  
 네가 너 스스로를 묶었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걸었다 (ἔζώννυες σεαυτὸν καὶ περιεπάτεις ὅπου ἤθελες·)  
 그러나 네가 점점 늙어 가면서 (ὅταν δὲ γηράσῃς·)  
 너의 팔을 뻗칠 것이다 (ἐκτενεῖς τὰς χεῖράς σου·)  
 그리고 다른 자가 너를 묶을 것이고 (καὶ ἄλλος σε ζώσει)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καὶ οἴσει ὅπου σὺ θέλεις·)
- (19절) 그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τοῦτο δὲ εἶπεν)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를 예언하시면서  
 (σημαίνων ποίῳ θανάτῳ δοξάσει τὸν θεόν·)  
 그리고 그가 그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καὶ τοῦτο εἰπὼν λέγει αὐτῷ·)  
 나를 따라오너라 (ἀκολούθει μοι·)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아침 식사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일곱 제자 중에 베드로 한 명을 꼭 집어서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앞 부분 전체를 통틀어 가장 독특한 부분입니다. 15-17 절의 전체 구조를 보겠습니다(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중심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Σίμων Ἰωάννου·)

네가 이들 보다 더 나를 아가페하느냐? (ἀγαπᾷς με πλέον τούτων·)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필레오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ναὶ κύριε, σὺ οἶδας ὅτι φιλῶ σε. λέγει αὐτῷ·)

나의 양들을 먹이라 (βόσκει τὰ ἄρνια μου.)

요한의 [아들] 시몬아 (Σίμων Ἰωάννου·)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ἀγαπᾷς με·)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필레오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ναὶ κύριε, σὺ οἶδας ὅτι φιλῶ σε. λέγει αὐτῷ·)

나의 양들을 인도하라 (ποιμαίνε τὰ πρόβατά μου.)

요한의 [아들] 시몬아 (Σίμων Ἰωάννου·)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φιλεῖς με·)

주여 당신이 모두를 아십니다 (κύριε, πάντα σὺ οἶδας·)

내가 당신을 필레오한다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σὺ γινώσκεις ὅτι φιλῶ σε·)

나의 양들을 먹이라 (βόσκει τὰ πρόβατά μου.)



대화의 상황이나 감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내용 자체만 보면 모두 예수님과 베드로가 거의 유사한 대화를 세 번에 걸쳐 반복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을 질문했고, 그때마다 베드로가 적절하게 대답했으며, 그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같은 질문을 세 번 반복했는지 그 이유에 많은 관심을 둡니다. 어떤 이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고 그 죄책감에 시달려온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그런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화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를 ‘시몬 요한노우’ (Σίμων Ἰωάννου)라고 부르십니다. 영어로 직역하면 ‘Simon of John’입니다. 그냥 ‘요한의 시몬’이지요. 참고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마 16:17). 그래서 대부분의 번역에서 ‘시몬 요안노우’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단어는 그 어근이 ‘듣다’ ‘순종하다’라는 의미인 *shma* (שמע)에서 유래했습니다.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가 둘째 아들을 낳고 ‘야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도다’하며 지은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과 시몬은 같은 이름이지요. 한편 요한은 ‘은혜’ 또는 ‘은혜를 입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부르면서 바요나 시몬이라 부르시 않고 원천을 의미하는 *genitive*를 사용해서 ‘시몬 요한노우’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를 직역하면 ‘은혜로부터 나온 시몬아’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이 굳이 그의 이름을 ‘시몬 요한노우’라고 세 번이나 반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 너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은혜의 선포를 듣고 순종의 삶을 살도록 지어진 자’라는 의미로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닐까요?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질문입니다. 그냥 우리 한글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로 되어 있지만, 실제 질문은 그렇게 추상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네가 이들보다 더 나를 아가페하느냐? (ἀγαπᾷς με πλεόν τούτων;)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ἀγαπᾷς με;)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φιλεῖς με;)

처음 두 번의 질문은 ‘아가파스 메’ (ἀγαπᾷς με)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직역하면 ‘나를 아가페하느냐?’이지요. 아가페란 헌신적이고 일방적인 사랑, 희생적인 내리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아가페로 대답하지 않고 즐기차게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필레오는 친밀한 관계인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로 지낼 수는 있어도 자신이 헌신하고 희생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첫 번째 질문에는 두 번째 질문과는 달리 ‘이들보다 더’라는 비교급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쉽게 다른 제자들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결론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주관적인 판단으로 자신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필레오’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들’ (these)로 번역된 단어가 지시대명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언가 비교 대상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만약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면 다른 한가지 가능성은 바로 배를 비롯한 고기잡는 데 쓰이는 온갖 물건들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한 도

구나 방편들보다 더 나를 아가페 하느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에 동조합니까? 동료들보다 더 아가페하느냐?로 질문한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생존 도구들보다 더 아가페하느냐?로 질문하신 걸까요? 각자의 의견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상대적이라면 두 번째 질문은 절대적 의미입니다. 세상이든 주위에 있는 사람이든 일이든 밤이든 그 무엇과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이 질문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아가페’하기만 하면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의 정도를 측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여기서도 동일하게 베드로는 아가페가 아닌 펠레오로 대답합니다. 자신은 아가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지요.

계속해서 베드로가 펠레오한다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질문을 바꿉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질문의 수위를 베드로에게 맞춥니다. “네가 나를 펠레오 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가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니다. 물론 베드로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한번도 자신이 예수님을 아가페한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믿는 자들 중에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고작 인간의 행위 따위에 의해 명예가 훼손될 정도로 하찮은 존재가 아니십니다. 또한 인간들이 떠 받들어 주는 것으로 흡족해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좌지우지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진정한 신앙 생활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목요일)

### 오늘의 본문 (요 21:15~19)

15.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 또 두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18.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 원문해석하기

- (15절) 그들이 아침식사를 하고 난 후 (“Οτε οὖν ἤρισθησαν)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τῷ Σίμωνι Πέτρῳ ὁ Ἰησοῦς;)  
요한의 [아들] 시몬아 (Σίμων Ἰωάννου),  
네가 이들보다 더 나를 아가페하느냐? (ἀγαπᾷς με πλέον τούτων;)  
그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필레오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ναὶ κύριε, σὺ οἶδας ὅτι φιλῶ σε. λέγει αὐτῷ·)  
나의 양들을 먹이라 (βόσκει τὰ ἄρνια μου.)
- (16절) 그가 두 번째로 다시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πάλιν δεύτερον·)  
요한의 [아들] 시몬아 (Σίμων Ἰωάννου),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ἀγαπᾷς με;)  
그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필레오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ναὶ κύριε, σὺ οἶδας ὅτι φιλῶ σε. λέγει αὐτῷ·)  
나의 양들을 인도하라 (ποίμανε τὰ πρόβατά μου.)
- (17절) 그가 세 번째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τὸ τρίτον·)  
요한의 [아들] 시몬아 (Σίμων Ἰωάννου),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φιλεῖς με;)  
시몬 베드로가 슬퍼했습니다 (ἐλυπήθη ὁ Πέτρος)  
그가 그에게 세 번째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 (ὅτι εἶπεν αὐτῷ τὸ τρίτον· φιλεῖς με·)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καὶ λέγει αὐτῷ·)  
 주여 당신이 모두를 아십니다 (κύριε, πάντα σὺ οἶδας·)  
 내가 당신을 필레오한다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σὺ γινώσκεις ὅτι φιλῶ σε·)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나의 양들을 먹이라 (βόσκει τὰ πρόβατά μου.)
-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σοι·)  
 네가 젊었을 때에는 (ὅτε ἦς νεώτερος·)  
 네가 너 스스로를 묶었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걸었다 (ἔζώννυες σεαυτὸν καὶ περιεπάτεις ὅπου ἤθελες·)  
 그러나 네가 점점 늙어 가면서 (ὅταν δὲ γηράσῃς·)  
 너의 팔을 뻗칠 것이다 (ἐκτενεῖς τὰς χεῖράς σου·)  
 그리고 다른 자가 너를 묶을 것이고 (καὶ ἄλλος σε ζώσει·)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καὶ οἴσει ὅπου σὺ θέλεις·)
- (19절) 그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τοῦτο δὲ εἶπεν)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를 예언하시면서  
 (σημαίνων ποῖῳ θανάτῳ δοξάσει τὸν θεόν·)  
 그리고 그가 그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καὶ τοῦτο εἰπὼν λέγει αὐτῷ·)  
 나를 따라오너라 (ἀκολούθει μοι·)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5-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중 베드로의 반응과 예수님에게 맡긴 사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필레오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ναὶ κύριε, σὺ οἶδας ὅτι φιλῶ σε. λέγει αὐτῷ·)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필레오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ναὶ κύριε, σὺ οἶδας ὅτι φιλῶ σε. λέγει αὐτῷ·)  
 주여 당신이 모두를 아십니다 내가 당신을 필레오한다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κύριε, πάντα σὺ οἶδας, σὺ γινώσκεις ὅτι φιλῶ σε.)

예수님의 첫 두 번의 질문에서 베드로는 일관되게 같은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나이 큐리에’ (ναὶ κύριε)라고 자신의 대답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헬라어 나이는 긍정의 대답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즉,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라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아가페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 대답입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주님 제가 당신을 필레오 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하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질문을 바꿉니다. ‘내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φιλεῖς με·)’ 아가페가 필레오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필레오’로 대답하던 베드로에게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필레오하느냐?’라고 질문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동안 아가페로 질문할 때에는 아무런 감정 표현 없이 대답을 하던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이 자신의 언어인 ‘필레오’로 질문하자 왜 갑자기 슬퍼했을까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세 번이나 질문을 해서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필레오하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묵상의 결과 때문이었을까요?

적어도 자신의 말을 믿어 주지 않는 예수님이 야속하고 슬퍼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 한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고 그저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온 자신의 삶의 여정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가 여종의 질문에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일이 생각났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호기 있게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온 말커스의 귀를 자르기까지 했던 그가 그가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했지요. 게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도 예수님이 공생애 내내 하신 그가르침을 까맣게 잊고 물고기를 잡던 옛 과거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가페라고 질문했을 때는 자신있게 필레오한다고 대답했지만 정작 필레오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자신의 정체를 들킨 것 같아 비통해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주여 당신이 모두를 아십니다. 내가 당신을 필레오한다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그의 대답에서 “그렇습니다”라는 확인하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호언장담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예수님의 판단에 위임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주관적 의지를 포기했습니다. 필레오하고 안하고의 판단조차 예수님의 몫입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께 자신의 판단마저 맡겨버립니다. 인간적인 의지로 자신이 정말로 주님을 필레오 할 수 있다는 호기조차 없어진 상태입니다. 아마도 예전의 베드로였다면 즉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바다에라도 뛰어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필레오하는 그 힘조차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 능력조차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베드로도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비통해 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당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양들을 먹이라 (βόσκει τὰ ἀρνία μου.)

나의 양들을 인도하라 (ποιμαίνει τὰ πρόβατά μου.)

나의 양들을 먹이라 (βόσκει τὰ πρόβατά μου.)

예수님은 세 번에 걸쳐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인 단어가 세 번 모두 다릅니다. 먼저 양이라는 의미로 쓰인 단어로 첫 번째는 ‘아르니아’ (ἀρνία, 아르니온의 복수형), 나머지 두 번은 ‘프로바타’ (πρόβατά, 프로바톤의 복수형)를 사용했습니다. 문장의 묘미를 주기 위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둘 모두 양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양을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말씀한 곳은 신약 성경에는 총 33번인데 그 중 32번에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은 모두 ‘아르니온’으로 표기했고 일반적인 동물로서의 ‘양’은 ‘프로바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한편 계시록 이외에 다른 곳에서는 모두 ‘프로바톤’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도 양이 총 20번 등장하는데 19번이 ‘프로바톤’으로 쓰였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처했던 입장을 정치적 사회적 희생양(아르니온)이자 연약한 존재(프로바톤)로 묘사하고자 그랬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동사로 쓰인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명령은 ‘먹이라’(βόσκει, 보스케)와 인도하라(ποιμαίνε, 포이매네)입니다. 두 단어를 합치면 목양이 됩니다. 먹이기 위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는 초대 교회에서 목자의 역할을 맡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11-12).

바울의 해석에 따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한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같은 명령은 단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인도 받아야 할 양이자 인도하는 목자인 것입니다. 어느 측면에서는 영적으로 도움을 받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타인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인 거지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항상 누군가가 먹여주어야 하거나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피동적 신앙인인가요? 아니면 누군가를 먹이고 인도하는 능동적 신앙인인가요?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너는 나를 따르라 (금요일)

### 오늘의 본문 (요 21:15~19)

15.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 또 두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18.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 원문해석하기

- (15절) 그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난 후 (Ὅτε οὖν ἤρρισθησαν)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τῷ Σίμωνι Πέτρῳ ὁ Ἰησοῦς)  
요한의 [아들] 시몬아 (Σίμων Ἰωάννου),  
네가 이들 보다 더 나를 아가페하느냐? (ἀγαπᾷς με πλέον τούτων;)  
그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필레오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ναὶ κύριε, σὺ οἶδας ὅτι φιλῶ σε. λέγει αὐτῷ·)  
나의 양들을 먹이라 (βόσκει τὰ ἄρνια μου.)
- (16절) 그가 두번째로 다시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πάλιν δεύτερον·)  
요한의 [아들] 시몬아 (Σίμων Ἰωάννου),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ἀγαπᾷς με;)  
그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필레오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ναὶ κύριε, σὺ οἶδας ὅτι φιλῶ σε. λέγει αὐτῷ·)  
나의 양들을 인도하라 (ποίμαινε τὰ πρόβατά μου.)
- (17절) 그가 세번째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τὸ τρίτον·)  
요한의 [아들] 시몬아 (Σίμων Ἰωάννου),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φιλεῖς με;)  
시몬 베드로가 슬퍼했습니다 (ἐλυπήθη ὁ Πέτρος)  
그가 그에게 세 번째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ὅτι εἶπεν αὐτῷ τὸ τρίτον· φιλεῖς με·)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καὶ λέγει αὐτῷ·)

주여 당신이 모두를 아십니다 (κύριε, πάντα σὺ οἶδας·)

내가 당신을 필레오한다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σὺ γινώσκεις ὅτι φιλῶ σε·)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나의 양들을 먹이라 (βόσκει τὰ πρόβατά μου·)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σοι·)

네가 젊었을 때에는 (ὅτε ἦς νεώτερος·)

네가 너 스스로를 묶었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걸었다 (ἑξώνυες σεαυτὸν καὶ περιεπάτεις ὅπου ἤθελες·)

그러나 네가 점점 늙어가면서 (ὅταν δὲ γηράσῃς·)

너의 팔을 뻗칠 것이다 (ἐκτενεῖς τὰς χεῖράς σου·)

그리고 다른 자가 너를 묶을 것이고 (καὶ ἄλλος σε ζώσει·)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καὶ οἴσει ὅπου οὐ θέλεις·)

(19절) 그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τοῦτο δὲ εἶπεν)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를 예언하시면서

(σημαίνων ποίῳ θανάτῳ δοξάσει τὸν θεόν·)

그리고 그가 그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καὶ τοῦτο εἰπὼν λέγει αὐτῷ·)

나를 따라오너라 (ἀκολούθει μοι·)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8절을 읽으십시오. 베드로와 대화를 주고 받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에는 네가 너 스스로를 묶었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걸었다. 그러나 네가 점점 늙어가면서 너의 팔을 뻗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자가 너를 묶을 것이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베드로에게 닥칠 운명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기서 ‘묶다’로 번역된 ‘존누오’ (ζωνῶ)라는 동사는 옷을 입고 그 위에 띠를 두르는 것을 말합니다. 일을 하거나 여행을 할 때 단장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지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젊었을 때에는 자기 스스로 띠를 묶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다닐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젊었을 때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베드로의 젊은 시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 자신의 욕망을 버리지 못했던 지난 3년은 물론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다시 갈릴리 바다로 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네 맘대로 살았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경에는 ‘늙어서는’으로 번역된 ‘게라세스’ (γηράσῃς)는 점점 늙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라는 뜻이지요. 즉, 베드로가 나이 들어 순교를 당하는 특정한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기보다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를 다시 부른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너의 팔을 빼칠 것이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당시 근동 지방에서 ‘에크테 네이스 타스 케이라스’ (ἐκτενεῖς τὰς χεῖρας)는 십자가 형을 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베드로의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셨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뒤이어 하신 말씀이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자가 너를 묶을 것이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라고 예언하십니다. 여기서 다른 자는 누구이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여기서 다른 이들(복수)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이(단수)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알로스’ (ἄλλος)는 타인을 나타내는 말로 단수입니다. 한 명이라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살펴본 ‘늘어가면서’ (ὑπόσπης)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른 자가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끌고다니는 유일한 존재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떠나고 오순절 그를 찾아 오신 성령님입니다. 베드로를 십자가에까지 이끄는 존재는 다름 아닌 성령님입니다. 설불리 그를 체포해서 십자가에 처형하는 로마 군대 또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연상해서는 안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의지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원하는 고기잡이를 할 수 없습니다.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가라면 가야 하고 머물라고 하면 머물러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시하는 말만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이런 의미에서 ‘다른 자’는 다름 아닌 성령님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에 이끌려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자신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도록 완전하게 위장해 주십니다. 하지만 큰 길을 열어 놓고 가게 하십니다. 편도 10차선 도로를 뚫어 놓고 차선은 마음대로 정해서 갈 수 있게 해 두신 것이지요. 속도도 제 맘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바꿀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군데군데 있는 장애물과 신호도 피할 수 없습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그것을 우회해서 가든지 아니면 치우고 가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속도는 느려지고 괜한 일로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호를 만나면 쉬었다 가야 하고, 남들이 나를 앞질러 가거나 반대로 내가 남을 앞질러 가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 보면 어느새 운전하는 자신만 보입니다. 그렇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길을 달렸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베드로를 인도하는 주체는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유대인들 앞에 서서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수천 수만이 모인 광장에서 말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기도 할 것이고,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방인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십자가에 못박은 로마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을 말이지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형장의 이슬로 삶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세상의 영광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낮은 위치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19절을 읽으십시오. 저자는 예수님의 예언이 결국은 베드로의 죽음에 관한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죽음이지요.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죽을 수 없다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해달라고 했답니다. 어쨌든 그는 그의 삶은 십자가에서 마감했습니다. 왜 그렇게 죽어야 했을까요? 성경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라는 말로 베드로의 죽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한 제자를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 매일 성령님에 이끌려 우리의 욕망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 나가는 과정이 바로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실제로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걷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겠지요.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요일)

### 오늘의 본문 (요 21:20~25)

20.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러라
21.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2.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23.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 이러라
24.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줄 아노라
25.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줄 아노라

### 원문해석하기

- (20절) 베드로가 돌이키면서 예수님이 사랑한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Επιστραφείς ὁ Πέτρος βλέπει τὸν μαθητὴν ὃν ἠγάπα ὁ Ἰησοῦς ἀκολουθοῦντα.)  
그는 만찬장에서 그의 가슴에 기대었던 자였습니다  
(ὡς καὶ ἀνέπεσεν ἐν τῷ δείπνῳ ἐπὶ τὸ στήθος αὐτοῦ)  
그리고 말하기를 ‘주여 당신을 팔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자였습니다]  
(καὶ εἶπεν· κύριε, τίς ἐστὶν ὁ παραιδίδους σε;)
- (21절)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보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τοῦτον οὖν ἰδὼν ὁ Πέτρος λέγει τῷ Ἰησοῦ·)  
주여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κύριε, οὗτος δὲ τίς)
- (22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λέγει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만약 내가 올 때까지 내가 그를 머물게 한다고 해서 (ἐὰν αὐτὸν θέλω μένειν ἕως ἔρχομαι,  
너에게 무엇이냐?(τί πρὸς σέ;)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σύ μοι ἀκολούθει.)
- (23절) 그런데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전해졌습니다(ἔξηλθεν οὖν οὗτος ὁ λόγος εἰς τοὺς ἀδελφοὺς)  
그 제자는 죽지 않는다고 (ὅτι ὁ μαθητὴς ἐκεῖνος οὐκ ἀποθνήσκει·)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οὐκ εἶπεν δὲ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그가 죽지 않는다고 (ὅτι οὐκ ἀποθνήσκει)  
오히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남아 있게 한들 (ἀλλ· ἐὰν αὐτὸν θέλω μένειν ἕως ἔρχομαι)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τί πρὸς σέ;]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 (24절) 그가 그 제자입니다(Οὗτός ἐστιν ὁ μαθητὴς)  
이것에 대해 증거하고 이것을 기록한 (ὁ μαρτυρῶν περὶ τούτων καὶ ὁ γράμας ταῦτα.)  
그리고 우리는 그의 증거가 진리인 줄 압니다(καὶ οἶδαμεν ὅτι ἀληθὴς αὐτοῦ ἡ μαρτυρία ἐστίν.)

(25절)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이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Ἔστιν δὲ καὶ ἄλλα πολλὰ ἃ ἐποίησεν ὁ Ἰησοῦς,) 누군가가 만약 그것들을 일일이 기록한다면 (ἅπανα ἐὰν γράφηται καθ' ἓν,) 내 생각에는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을 보관하기가[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οὐδ' αὐτὸν οἶμα τὸν κόσμον χωρῆσαι τὰ γραφόμενα βιβλία)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0-23 절을 읽으십시오. 자신의 운명에 대한 예언을 들은 베드로는 몸을 돌려 예수님이 사랑한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제자는 어떻게 될 것인지 묻습니다. 그 제자는 최후의 만찬장에서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던 자로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고 해서 너에게 무엇이냐?(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 오너라.”

20 절을 토대로 당시의 상황을 추정해 보면 이미 아침 식사가 끝나고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는 어딘가를 걷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예수님이 걷고 있는 그 뒤를 ‘예수님이 사랑한 그 제자’가 따라왔던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뒤따라오는 그 제자를 보면서 그의 운명에 대해 묻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19 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 오너라’라 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오라는 말도 되지만 실제로 그 상황에서 일어나 다른 장소로 옮기시면서 따라 오라고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잠시 함께 바닷가를 거닐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 뒤를 ‘예수님이 사랑한 그 제자’가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던 베드로는 갑자기 그 제자의 미래도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쭙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늙어 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도, 자신이 원하는 죽음을 죽을 수도 없다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요. 저는 그렇다고 치고, 저 친구는 그럼 어떻게 되는 데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명료합니다. 요약하면, ‘그 제자의 미래는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제자도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러니 그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려 두든 말든 그것이 베드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공평’은 기계적인 평등, 수학적 균등을 말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질 사명, 삶을 있는 그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자의 밥상에 있는 진수성찬을 빼앗아 그 상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부자는 배 불리 먹었고, 나사로는 거지로 살다 거지로 죽었습니다.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하나님은 너무도 불공평한 분처럼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가정도 부유한데 배우자도 잘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도 속을 썩이지 않고 아무런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집안에 큰 소리가 떠

나지 않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속을 썩입니다.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없는 행복한 가정을 더 행복하게 해 주시고 불행한 가정은 점점 더 불행하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이 현실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나만 애통해야 하는지 도통 삶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나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닌데, 왜 나만 고난을 받고, 왜 나만 선교해야 하고,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사람과 살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하필이면 내가..’라는 생각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계적 평등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로 착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정의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공의에 대해 어떤 시비도 걸 수 없는 것이지요. 세상만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앞세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그 주권이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인간이 불만을 가지거나 하나님의 주권에 반기를 들 수는 없는 거지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복하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의문을 제기하며 불공평한 삶을 바로 잡아 달라고 매달리시나요?

24-25 절을 읽으십시오. 저자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그 제자이며, 그의 증거가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예수님의 행적 중 극히 일부분만을 기록한 것일 뿐이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을 예수님의 행적을 목격한 자며 그 목격담을 기록한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는 그가 체험한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의 증거를 통해 진리로 알려지기를 바라는 선에서 최소한의 것만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신자들의 삶을 신앙 생활이라 합니다.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많은 가르침도 받고, 수많은 직간접 체험도 합니다.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일에 일생을 바치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 자신의 목숨을 거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는 피의 역사라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순교의 피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올바르게 아는 과정입니다. 그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한걸음씩 다가가는 거지요. 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는 것도,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명예를 높이는 것도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하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 2:2).

이제 요한복음 묵상을 마무리 합니다. 당신은 요한복음을 통해 계시된 그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셨나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달으셨나요?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만들고 계신가요?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